

## 채란인들 합심하고 단결하여 불황을 극복하자!

### 동향

통계청 가축동향 조사에 따르면 '15년 3분기 산란계 사육수수는 7천209만수로 전분기 대비 6.2% 증가하였고, 전년동기 보다는 10.5% 증가하는 등 산란계농가의 사육규모 확대와 사육수수의 증가가 심각한 상황이다. 1일 평균 식용계란 생산량은 42백만여개로 전체 산란계의 58% 가량이 산란에 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 9월까지 월 평균 산란계병아리 입식수수는 403만수로 지난 '14년 9월 누계평균 359만수, '13년 9월 누계평균 293만수에 비해 병아리 입식수수 또한 큰폭으로 증가하여 과잉 사육으로 시세 전망이 어둡기 만한 상황이다. 산란계 사육수수 증가와 신규 종계장의 진입에 따라 산란종계장들은 종계장 신축 및 확장, 노후시설물 교체 등으로 병아리 분양능력을 높여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전혀 시장에 반영되지 않고 병아리 가격은 아직도 높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산란계농장 경영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 산란계농장에서는 계속되는 닭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증(MS) 피해와 가금티푸스의 산발적 발생으로 대부분 산란계농장의 산란 성적이 90%를 넘지 못하고 있다.

### 자료분석

지난 10월 산란종계 입식마리수는 64,500수로 전월(39,000수)대비 65.3% 감소하였으며, 전년동월(44,960수)대비 181.9% 증가하였다. 산란실용계 병아리 판매수수는 3,387천수로 전월(3,481천수)대비 2.7% 감소하였으며, 전년동월(3,700천수)대비 8.5% 감소하였다. 9월 육추사료 생산량은 33,906톤으로 전월(34,059톤)대비 0.4% 감소하였으며, 전년동월(31,668톤)대비 7.1% 증가하였다. 산란사료는 207,620톤으로 전월(187,117톤)대비 11% 감소하였으며, 전년동월(174,556톤) 대비 18.9% 증가하였다. 9월 산란종계사료는 6,303톤으로 전월(5,967톤)대비 5.6%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5,138톤)대비 22.7% 증가하였다. 한편 9월 산란성계육은 2,810천수로 전월(2,215천수)대비 26.9%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2,879천수)대비 2.4%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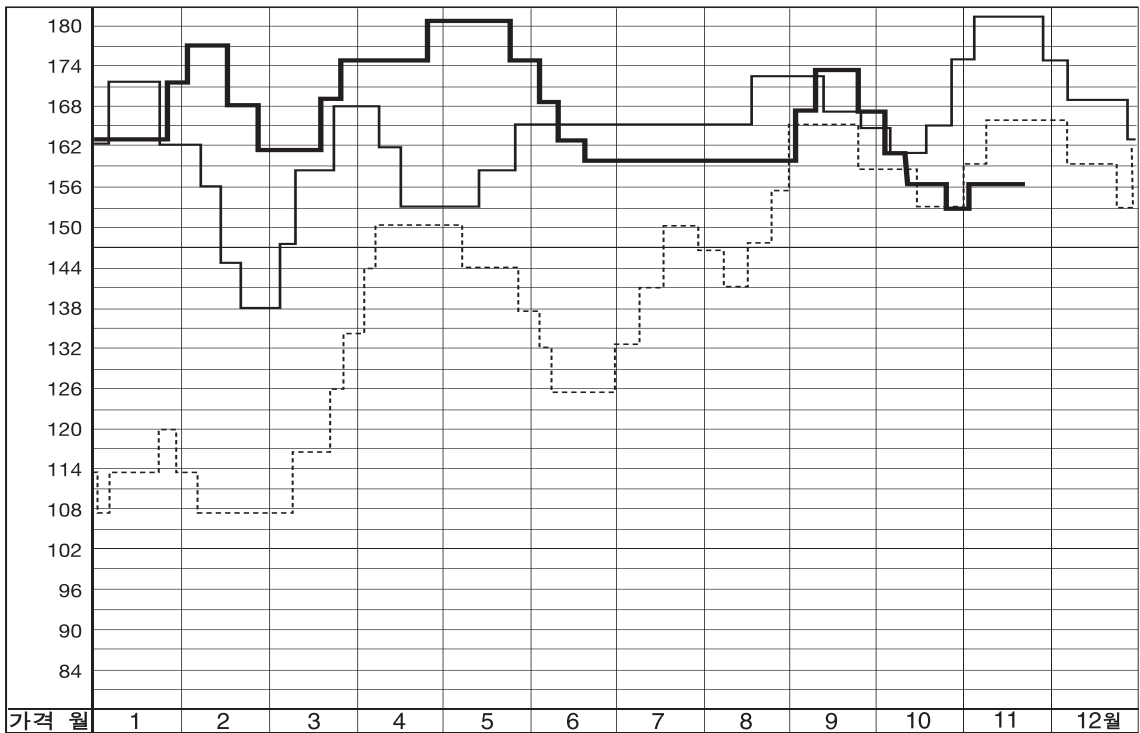
### 전망

계란의 과잉 생산과 소비 부진으로 계란 물량이 쌓이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또다시 계란 안전관리 강화 방침을 수립하고 있어 심각한 소비위축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난가공 공장의 계란제품 문제가 메스컴을 통해 보도된 후 식품관련단체들이 계란제품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자 계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면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어 산란계농장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일으켰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계란의 보관일수가 늘어 그나마 할인행사와 본회의 소비홍보 캠페인을 통해 소비를 유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수급안정화 대책마련 없이는 현 상황을 벗어나기는 어려운 현황이다. 한국농촌경제원 관측자료에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계란 생산량은 전년대비 9.3% 증가하고,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령 이상 산란계 사육수수는 전년 대비 9.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극심한 계란 시세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3분기 산란 전·초기 배합사료는 각각 12.9%, 16.2% 증가하고 후기 배합사료는 28% 증가하여 산란 예비계군과 노계군이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계란의 과잉생산으로 인해 구조적인 불황의 늪에 빠진 산란계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본회는 정부에 계란유통센터의 신축과 운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각국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산란계농가들의 절대적인 참여와 단결로 우리의 산업 유지·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 이달의 계란전망

이상목 차장  
경영정책국





특란기준 계란가격(개당)

2013-- 2014- 2015-

▶ 병아리·사료·계란생산(잠재력) 및 가격

월	연도	총 계 입식수 (수수)	실용계 생산수 (천수)	사료(천톤)		산란 실용계 (원)	서울 특란가격 (10개/원)
				육추	산란		
1	2012	20,000	3,313	29.8	175.8	1,338	1,589
	2013	63,000	2,139	27.0	181.9	1,075	1,079
	2014	45,300	3,499	28.4	192.2	1,050	1,678
	2015	101,280	4,352	33.2	204.2	1,450	1,645
2	2012	0	3,127	29.6	163.3	1,300	1,417
	2013	74,880	633	25.6	155.4	1,075	1,088
	2014	5,160	3,842	24.7	168.5	1,050	1,474
	2015	69,000	3,350	30.5	178.6	1,379	1,711
3	2012	10,600	3,296	31.2	177.4	1,272	1,420
	2013	18,000	3,819	22.7	166.7	1,066	1,145
	2014	64,000	2,635	25.4	176.7	1,172	1,570
	2015	39,700	4,285	34.1	197.7	1,350	1,667
4	2012	137,520	3,245	29.2	171.0	1,239	1,528
	2013	31,000	3,691	22.6	178.8	1,050	1,480
	2014	48,000	4,194	27.8	176.5	1,321	1,596
	2015	80,000	3,816	35.0	197.3	1,350	1,758
5	2012	50,000	3,686	32.0	172.3	1,200	1,405
	2013	50,000	3,430	26.3	176.8	1,050	1,451
	2014	54,080	3,752	29.7	175.6	1,450	1,582
	2015	64,000	4,529	34.5	193.0	1,300	1,787
6	2012	0	3,281	30.1	163.6	1,175	1,332
	2013	49,920	2,832	29.2	151.0	1,050	1,282
	2014	48,500	3,273	28.7	163.8	1,450	1,650
	2015	24,000	4,298	35.6	192.4	1,278	1,646

7	2012	0	2,700	28.6	158.5	1,150	886
	2013	79,500	3,453	29.3	166.9	1,050	1,432
	2014	52,500	4,258	31.4	172.0	1,450	1,650
	2015	69,760	4,087	36.5	195.0	1,250	1,600
8	2012	84,000	2,850	27.3	159.2	1,028	911
	2013	53,000	3,205	27.3	162.6	1,050	1,478
	2014	45,000	3,418	29.9	174.4	1,450	1,679
	2015	70,394	4,087	34.1	187.1	1,250	1,600
9	2012	52,000	2,347	24.9	167.5	1,050	1,195
	2013	11,000	3,225	27.7	167.9	1,050	1,633
	2014	44,960	3,460	31.7	174.6	1,450	1,691
	2015	39,000	3,481	33.9	207.6	1,250	1,695
10	2012	94,000	3,105	26.2	170.8	1,080	1,095
	2013	20,000	3,442	31.2	178.4	1,050	1,557
	2014	22,880	3,700	33.4	188.9	1,406	1,647
	2015	64,500	3,387			1,250	1,587
11	2012	0	3,526	26.7	168.8	1,100	1,095
	2013	45,760	3,128	28.9	177.3	1,050	1,640
	2014	76,400	3,754	30.3	182.7	1,450	1,804
	2015						
12	2012	0	3,721	27.3	181.5	1,100	1,713
	2013	59,200	3,203	29.9	188.8	1,050	1,590
	2014	29,600	4,536	34.9	208.1	1,450	1,692
	2015						
계	2012	493,880	38,198	343.1	2,029.7	1,169	1,299
	2013	554,960	36,200	327.6	2,052.5	1,056	1,405
	2014	536,380	44,321	356.3	2,154.0	1,346	1,643
	2015						

※2009년 11, 12월 실용계 생산수 변경